

多寶塔과 新羅八角浮圖

黃 壽 永

대저 三國시대 佛敎의 傳來는 비단 信仰이나 造形에 있어서뿐 아니라 古代葬法에 대하여서도 큰 變革을 일으켰으니 그것은 곧 火葬의 유행이다. 그리하여 古新羅와 百濟에 있어서는 그 末期에 이르러 이같은 새로운 葬法이 僧俗사이에서 비롯하였으며 統一新羅 직후에 이르러서는 文武大王이 친히 遺詔로서 「以火燒葬」하므로써 그 이후 盛行을 이루는 큰 契機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國都 경주를 중심으로 하여 周圍의 丘陵에서 무수한 骨壺가出土된 사실이나 특히 敬州 南山과 같이 이르는 곳마다 寺庵을 건립하고 塔像을 造成한 그 시대적 信仰의 背景을 또한 그 같은 곳에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二

그런데 高僧大德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의 行蹟을 길이 顯彰하기 위하여 火葬 또는 土葬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를 위하여 墓塔을 세우고 나아가 塔碑를 갖추게 되었다. 이같이 승려의 遺骨을 奉安한 墓塔을 가르켜 보통 浮圖라고 통칭하고 또 널리 塔으로서도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浮圖는 첫째 그 樣式에서 둘째 그 安置場所에서 佛塔과 다르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佛塔이 一般型 方形層塔을 主流로 삼고 寺域中心을 占定함에 대하여 浮圖는 주로 山下代인 九世紀中葉에 이르러 八角을 基本으로 삼고 單層型을 이루는 동시에 그 奉安의 장소가 寺域의 外廓 또는 그와 隣近하는 山地에 건립케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佛塔과 浮圖는 그 양식에서 뿐 아니라 그 建立된 장소에 따라서 區別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같은 浮圖의 發生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三國시대 末期에 있어서 대략 七세기 前半에는 初建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신라의 圓光



圖 1. 廉巨和尚塔

이나 惠宿 百濟의 惠現 등의 浮圖 혹은 石塔이 건립된 사실은 文獻 ①을 통하여 알 수 있으나 오늘에 전하지 못하였으며 더우기 그 始源樣式을 밝힐 文徵은 찾을 수가 없다. 그리하여 상기한 바와 같이 現存하는 가장 오랜 신라의 佛塔을 九세기 中葉인 廉巨和尚塔 ② (會昌四年 八四四)으로 추정하여왔으므로 七세기 前半으로 보이는 文獻에 기록된 三國時代 浮圖와의 사이에는 二世紀의 오랜 年差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같은 오랜 空白期를 메꿀 수 있는 우리 古代浮圖의 先行樣式을 찾아야 할 것이며 그들은 비단 廉巨和尚塔같은 塔誌를 同伴한 것 이외의 同式石造遺構에서 뿐 아니라 金屬 또는 樣式을 달리하는 佛塔에서 추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같은 觀點에서 다음에 드는 一例는 모두 廉巨和尚塔 보다 先行하고 있으니 하나는 七世紀 後葉의 金屬作品이요 다른 하나는 八世紀 中葉의 石造 異型塔이다.

三

먼저 金屬作品이란 것은 一九五九年 경북 月城郡 陽北面 龍堂里 感恩寺址 西三層石塔에서 발견된 舍利塔을 ③ 가리킨다. 이 작은 舍利塔은 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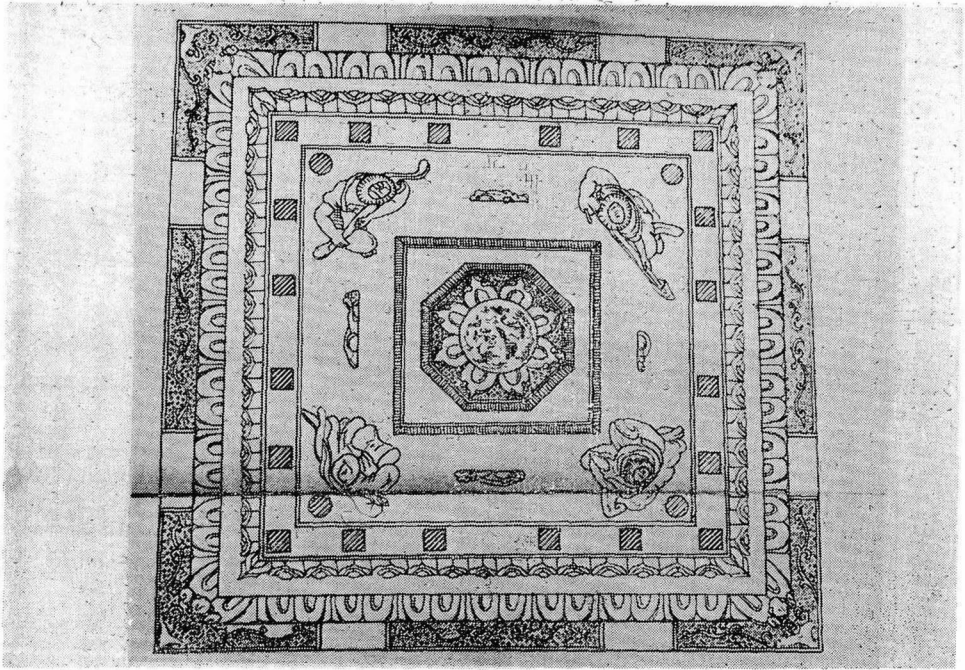


圖2. 感恩寺 西塔 舍利塔 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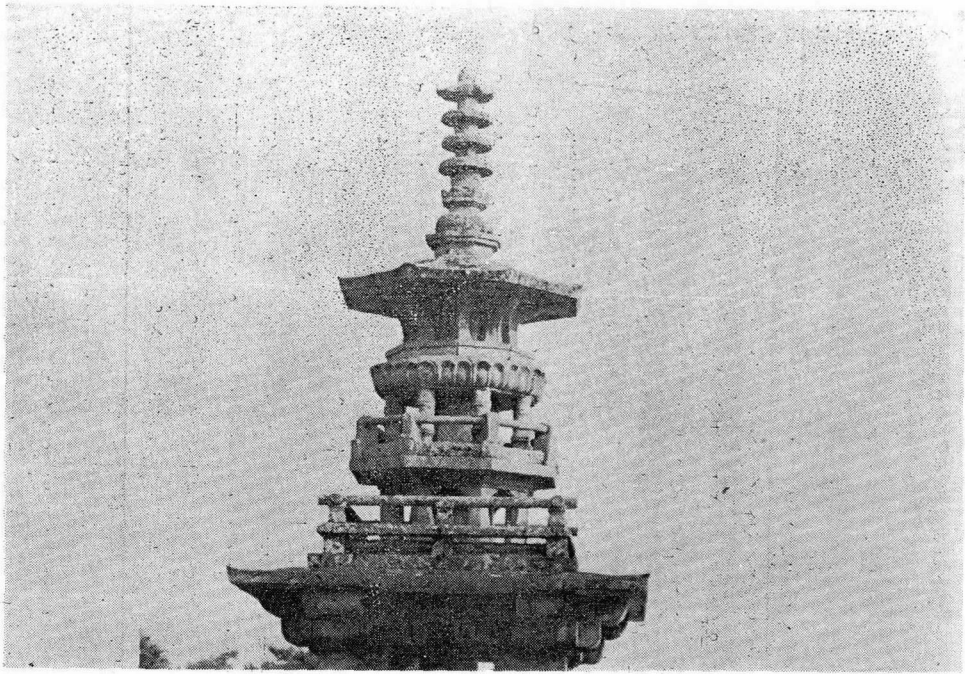


圖3. 多寶塔 八角塔身部

形의 單層基壇을 이루었는데 上下에 蓮花紋이 둘러있고 그 사이에는 一面二區의 眼象이 있어 그안에 四天王像과 供養坐形의 圓像 各一軀式을 배치하고 있다. 이같은 方壇의 上緣을 돌아서는 다시 古式의 欄杆이 있으며 다시 이 方壇 四隅에 네개의 기둥을 세워 그위에 方形二段의 天蓋를 支撐케 하므로써 밑에 蓮花座와 함께 上下構造를 이루게 하였다. 그리고 이같은 上下의 樣式을 지니는 그 사이에는 方壇이 있고 四隅에 다시 奏樂坐像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그 中央에는 八角蓮花座가 마련되고 그 위에 半球形塔이 놓였으며 다시 그 頂上에 寶珠와 火焰紋이 장식되어 있다. 이같이 方壇 中央에 안치된 八角基型을 잡은 이 塔은 그 內部에 水晶瓶이 있어 그안에 舍利를 창치하고 있으므로써 舍利塔으로서의 外形과 內容을 具備하였다.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方形的 基壇·天蓋를 上下에 지닌 사리구의 核心은 이 方壇 中心에 안치된 이같은 사리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舍利塔의 基型이 八角과 圓形을 이룬 점은 그것이 佛舍利임에 불투하고 그것을 奉安하고 있는 舍利塔의 양식은 다시 羅代의 石造八角浮屠를 고찰함에 있어서 서로 關聯지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 感恩寺舍利塔은 九世紀初에 이르러 다시 경주 漆谷 松林寺五層塔中에서 同系의 金銅舍利塔을 남기고 있으며 따라서 그 자체는 八角浮圖와는 別系의 것으로 區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感恩寺舍利塔이 方壇을 지니고 八角基壇위에 舍利塔을 안치한 양식에서 次項의 多寶塔과의 比較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四

신라의 八角浮圖는 基壇·塔身·屋蓋의 三部를 이루는 單層形式이 主流을 이루고 있다. 이같은 單層을 이루는 三部構成이란 점에서 상기한 感恩寺舍利塔도 그 번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다시 이같은 三部的 樣式을 지니고 單層塔으로 考察될 뿐 아니라 나아가 八角을 基本形으로 삼아서 塔身部를 構成하고 있는 사실에서는 그보다도 佛國寺多寶塔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 多寶塔은 國內唯一의 石造遺構로서 소중할 뿐 아니라 그 樣式이 一見하여 方과 圓이 上下에서 結構되었으며 細部에는 정교한 각종

表飾이 있어 매우 복잡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희귀한 造形을 樣式에서 區分하여 본다면 의외로 簡明하게 上下로 나누어 解說할 수가 있다. 그것은 위에서 들은 바와같이 方形的 基壇과 八角의 塔身과 屋蓋의 三區分을 이루고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多寶塔의 層數에 대하여서는 혹은 四層이라 하고 혹은 單層이라고도 하는데 필자는 위와같은 樣式考察에서 이 塔을 單層塔으로 說明하여 왔다. 그리하여 方形的 二層基壇이 있어 下壇에 오르는 四面에는 步階가 달리고 上壇은 四隅柱와 그 中央에 檨柱 一本을 세우므로써 本造塔婆에서의 初層塔身樣式을 따르기도 하였다. 이같은 木造樣式은 이곳 四柱위에 二段으로 重疊된 받침틀 양식이나 그위에 놓인 넓고 얇은 옥개의 양식에서 또한 지적할 수가 있다. 그리하여 이같은 木塔양식의 二層基壇은 비록 그 細部나 基本平面에서 一般型의 當代石塔(예컨대 釋迦塔)과 그 양식을 매우 달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당시에 유행된 기단의 重段形式을 따르고 있는 사실만은 매우 明白하다. 그리고 그위의 넓은 屋蓋面을 돌아서 欄杆이 있는 것은 그대로 상기한 感恩寺石塔에서 발견된 金동 사리탑의 양식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 感恩寺石塔 발견의 金銅舍利塔에 있어서나 多寶塔의 경우에 있어서나 塔婆의 中心部位는 이같이 방형난간으로 周回된 그속에 安置된 造形임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多寶塔에 있어서 이같은 方欄中央에 있는 八角構成體는 이를 또 다시 基壇·塔身·屋蓋의 三部로서 區分할 수 있는 것은 後代의 新羅八角浮屠에서도 보는 바와 똑 같다. 이를 설명한다면 이 八角塔에 있어서는 八區의 眼象柱를 둘러 最下層과 그위의 竹節形 竿柱 八本과 同數의 支柱를 세운 八角欄杆을 둘러 造形이 있어 이들이 다시 上下에서 각기 二重基壇의 形式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다시 이같은 重段위의 複蓮을 새긴 一大板石이 있어 그 以上の 造形이 가장 重要な 塔身部임을 가르키고 있다. 그런데 이 蓮花臺위에는 다시 八角臺板이 둘러있으며 그위에는 꽃술(花藥) 八本을 둘러서 八角臺板이나 仰蓮臺石과 더불어 큰 蓮꽃 한송이가 滿開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같이 해석한다면 상기한 八角臺板은 곧 연꽃 中心의 子房部에 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전에 이같은 꽃술形 支柱를 「長靴」형으로 표현한 것은 是正되어야 할 것이며 또는 꽃

술을 蘭草로 보는 등 四君子의 表現이라고 한 것 또한 그러하다. 이 같은 塔身을 덮고 또한 八角을 이루는 屋蓋石 一枚가 없었으며 頂上에는 八角의 露盤과 仰花와 둥근 相輪이 꽃혀 있다.

이것이 方形二層을 이루는 下部構造를 이塔의 基壇으로 해석할 때 그 方形屋蓋위에 欄杆를 돌리고 다시 그 中央에 安置된 八角形造形은 確實히 上下의 差別相에서뿐 아니라 이塔의 主體的存在임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그리하여 필자는 이 八角造形의 樣式을 이보다 下代인 九世紀에 들어서 유행하는 이른바 八角浮圖의 先行樣式으로 보아서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八角形造形이 그 基底부터 층층이 교묘한 기교와 양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蓮花臺以下の 것은 어느 것이나 그 以上の 最重要部位를 높이 받들기 위한 累積으로서의 의미와 手法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以上の 것은 이곳에서 重段을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위의 單層의 塔身을 위한 從的인 造形으로 볼 수가 있다. 이 같은 樣式的 區分은 上記한 九世紀中葉의 廉巨和尚塔을 비롯하여 그 後半에 걸쳐서 全國 山林에 건립되는 이른바 八角型을 中心삼은 祖師浮屠에서 그대로 繼承發展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같이 多寶塔을 그 上下의 區分에서 해석할 때 이담은 一般型層塔과 같이 그 층급을 計算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찌기 恩師 高裕變신생도 말씀하신바 있듯 혹은 無級塔 ④ 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또는 單層塔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더욱 간단히 요약한다면 方形二層基壇위에 안치된 八角浮圖의 上下結構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襄陽陳田寺浮屠는 方形二層基壇위에 八角塔身이 안치되고 있어 多寶塔과의 關係에서 특히 주목할 만 하다)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八世紀中葉부터 나타나는 異型塔중에서도 으뜸되는 이 佛國寺多寶塔을 들어서 그 당시 造塔手法의 基本樣式을 감안하고 동시에 舍利塔으로서 八角形을 基本으로 삼은 새로운 造形을 그와 連關시켜서 이 多寶塔을 해석하려 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多寶塔의 主體는 그 上部構造에 있으며 그 八角形式의 造形이 곧 신라下代에 성행하는 八角形 僧塔의 우리의 先行樣式으로 추정하려고 하였다.

多寶塔에 대하여서는 이미 先師에 의하여 法華經 ⑤ 또는 摩訶僧祇律 ⑥

에 보이는 造塔規範을 따르는 說明이 자세하게 遺著「韓國塔婆의 研究」에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先師와 考察의 角度를 달리하고 또 현존하는 當代의 우리 造形作品을 鑿빙으로 삼아 그들의 樣式比較에 보다 主眼點을 두고 고찰하려 하였다. 多寶塔에 대하여서는 別稿를 예정하려 하나 八角浮屠의 樣式을 더듬는 過程에서 필자는 國內에 現存하는 그 先行作品으로서 이 多寶塔을 간단하게 論議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의미에서 七世紀 後半의 作品임이 明白한 感恩寺 西塔 발견의 金銅 舍利塔 또한 그 材質의 差別에도 불구하고 多寶塔 보다도 더욱 先行하는 樣式을 오늘에 보이는 귀중한 유품으로 간단히 言及한 까닭이다. 九世紀에 들어서 비로소 크게 流行하는 신라 八角浮圖의 前程에서 이만한 先行作品을 찾아서 서로의 系脈을 더듬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多寶塔의 보다 상세한 논의의 期約하여야 하겠다. 新羅八角浮屠에 대하여서는 鄭永鎬教授의 勞作인「新羅石造浮圖研究」가 一九七四年에 발표되어서 詳細한 論議와 圖版이 있으므로 參照하여 주시기 바란다.

- ① 三國遺事 卷四 圓光西學條에「浮屠在三岐山金谷寺」
同上 卷四 二惠同塵條에「惠宿」亦有浮屠
 - ② 朝鮮金石總覽 上卷 原州興法寺 廉居和尚塔誌
 - ③ 金載元·尹武炳·感恩寺 圖面十九(二)、一九六一年 國立博物館刊
 - ④ 高裕變·朝鮮塔婆의 樣式變遷(各篇·續)(佛教學報)第三·四合輯 東國大 一九六六年刊
 - ⑤ 高裕變·朝鮮塔婆의 研究(其一) 慶州 吐含山 華嚴佛國寺多寶石塔條에 引 用된 妙法蓮花經 見寶塔品
 - ⑥ 同上 一〇〇頁에서 引用된 摩訶僧祇律에 나타난 造塔婆說은 다음과 같다.
作塔法 下基四方 周匝欄楯 圓起二重 方牙四出 上盤蓋 施長表相輪
선생은 이같은 表現을「多寶塔을 解明하기 위한 特製의 句인듯도 하여 그 形式을 說明함에 실로 餘蘊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고 하여서 이에 의하여 多寶塔의 各部分樣式을 설명하고 있다.
- [附記] 多寶塔의 二層基壇樣式은 全南求禮 華嚴寺의 四獅三層石塔과 비교할 만하다. 이塔은 多寶塔上段에서의 四隅柱를 대신하여 四獅의 獅子坐像을 배치하였으며 또 그 中央에는 多寶塔에서의 方形椽柱가 아니라 僧形立像을 세웠다. 이 같은 兩塔의 比較에서도 多寶塔을 二層基壇으로 고찰할 수 있다.